

#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시동 건다

### 시, 친환경차 부품공장 유치 산·학·연·관 TF 구성 지역경제 침체 예방대책·미래차 전환 지원 등 논의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친환경차 부품공장 유치를 위한 '광주형 일자리 시즌 2 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친환경 미래차 산업을 위한 메카도시이자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뒷받침을 위한 제2 광주형 일자리 추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초 광주형 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준공과 함께 흥행 돌풍을 일으킨 첫 양산 모델 캐스퍼의 성공을 기반으로 친환경 미래차 관련 산업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광주시는 시, 대학, 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혁신기관 등 자동차전문가를 중심으로 광주형 일자리 시즌 2 TF팀을 구성하고 매달 두 차례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상설협의체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자동차 산업 여건을 공유한 후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 당위성 개발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및 세부과제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역 부품기업 납품물

제고 방안 ▲지역 기업의 광주형 일자리 시즌 2 밸류체인 참여 확대 방안 ▲지역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미래자동차로 바꾸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래차 전환이야말로 지역 자동차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인 지역 기업의 개별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미래차 전환 투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 후 매출 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침체 예방 대책과 지역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꼼꼼한 전략 수립도 병행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광주시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중심의 미래차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빛그린산단에 3,030억 원이

투입된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와 부품인증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인 자율주행 비대면 서비스 실용화,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인공지능형 자율주행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자율주행 실증 장비 등을 구축하면서 미래차 산업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고 있다.

손경중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기후 변화 대응과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한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중심의 미래차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므로 기아차와 GGM의 생산 확대 및 친환경차 생산에 대비해 지역 내 안정적 부품 공급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며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기반으로 관련 부품공장 유치를 위한 시즌2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 이형석 의원, 광주구치소 신축부지 변경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사진)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 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교육 기관과 인접해있어 구치소 위치로 부적합하다"면서 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변경을 강력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변경 및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요청 공문을 법무부와 광주광역시에 각각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 구치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 1-3 일원에 연면적 3만 6,686㎡, 수용인원 900명을 목표로 총사업비 1,193억원을 들여 2028년 완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주 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와 180m 떨어진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고 1km 이내에는 유치원 어린이



집, 송일중·고등학교, 살레시오중·고등학교, 서일초등학교, 일신초·중학교, 일곡초·중학교, 일동초등학교 등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 기관과 시설이 밀집돼있다. 이에 따라 일곡동 1-3 일원에 구치소를 신축하려는 법무부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아파트 단지 및 청소년 기관·시설과 인접해 있는 예정 부지에 광주 구치소를 신축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면서 "구치소 부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정기 브리핑

## 김승남 "강진 쌀귀리 농촌융복합 선정"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25일 "2022년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공모사업"에 강진 쌀귀리 품목이 최종 선정돼 2년간 사업비 30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조성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쌀귀리, 유자 등 지역 자원 생산자,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 네트워크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 연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신제품 개발, 마케팅에 집중해 왔다.

올해 선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사업은 농식품부가 지역 자원의 생



산, 가공, 유통 등 6차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쌀귀리 종합가공시설 구축 및 네트워크 및 주체 역량 강화,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에 각각 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강진 쌀귀리 등 음식자원과 다산초당 등 역사자원 연계를 통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정훈, '지역에너지센터' 법제화 추진

지역 현장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에너지 관련 갈등을 조정할 '지역에너지센터' 설치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사진) 의원은 25일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 설치,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및 역할 규정,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명시 등 조항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현장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상충 수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 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불편을 제기해 왔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 주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25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아파트 봉괴 현장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준석 "야당이 할 일 하겠다"

광주 봉괴현장 방문... "실종자 가족 돕기 위해 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5일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봉괴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를 수색하는데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실종자 가족대표소에서 "지난해 6월 당 대표로 당선된 뒤 처음 광주에 와서 학동 봉괴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던 기억이 난다"며 "또 한 번 안전사고가 일

어나 마음이 아프다"고 가족들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실종자 가족분들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이번 사고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를 유발한 이들이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 대표에게 "이번 봉괴 사고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가 아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전남도민 보호·안전 강화

전남도는 시군 CCTV관제센터를 도와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상반기 중에 조기 완료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통합사회안전망을 만들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도내 22개 시군 중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구례,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완도 등 11개 시군과 연계를 마쳤다.

올해는 나머지 담양, 곡성, 고흥, 보성, 화순, 장흥, 무안, 영광, 장성, 진도, 신안 등 11개 시군을 도와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도비 20억 원, 시군비 15억 원 등 총 35억 원이다. 1월 발주를 마치고 6월 말까지 양당구 구축을 마칠 방침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재난·범죄 현장의 실시간 CCTV영상을 112상황실, 경찰서, 경찰차, 119종합상황실, 도 재난안전상황실,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등이 함께 실시간 상황을 공유한다. 도민의 안전, 교통, 시설 등을 24시간 감지·분석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방법·방재·교통 등 개별서비스를 통합 플랫폼과 연계해 ▲112센터 긴급영상·출동 ▲수배차량 검색 ▲119 긴급출동 ▲재난상황 긴급 대응 ▲전자발찌 착용자 위반 행위 시 범죄 예방 등 서비스도 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난·범죄 취약지역에 고화질 CCTV와 지능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지속적 지원으로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 골드클래스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분"  
"개발 사업 부지를 증계하고자 하시는 분"  
"소유하고 계신 부지의 개발 파트너를 찾는 분"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골드클래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골드클래스(주) ☎ 보광종합건설(주)

- ☎ 문의 : 062) 233-3999 (내선 500, 503) 010-3637-3735
-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화정동)